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강은이) ‘시흥 다동 리더모임’은 지난 12월 9일 지역의 아동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김장김치와 케이크를 만드는 행사를 진행했어요.

‘시흥 다동 리더모임’은 시흥시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여성리더들로 구성된 사회적 가족 공동체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김장김치를 만들어 지역 내 공공기관과 지역아동센터에 나눔을 해왔으며, 2023년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추가로 제작해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빛된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어요.

이날 행사에서 시흥 다동 리더모임 나미영 회장은 “다문화가족으로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했다. 앞으로도 다문

화가족들이 힘을 모아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시흥 다동 리더모임’에서 5kg의 김장김치 15통과 크리스마스 케이크 13개를 전달받은 빛된 지역아동센터 김호철 센터장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전달받아 행복하다. 아이들도 다문화가족 리더분들처럼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시흥시가족센터는 2024년에도 다문화가족 공동체들의 여성리더를 발굴하여 시흥 다동 리더모임을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 사항은 시흥시가족센터 가족1과 문화공동체팀(031-319-7997)으로 연락하면 돼요.

파파야 스토리

시흥시, 2024년 아이누리 돌봄기관 정기 이용 아동 모집해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4년 아이누리 돌봄기관’ 정기 이용 아동을 초등돌봄통합 플랫폼을 통해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2019년부터 설치를 시작한 아이누리 돌봄기관(아이누리 돌봄센터 20곳, 학교돌봄터 3곳)은 현재 관내에 총 23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아이누리 돌봄기관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맞벌이 가정의 초·중학생(만 6세~만 12세 미만)이 이용할 수 있다.

학기 중에는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이 이뤄진다. 학습 지도 및 급·간식 지원, 숙제·독서 지도, 예체능 등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모집은 시흥시 초등돌봄통합 플랫폼(<https://childfirst.siheung.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기관별로 다르다.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23곳의 돌봄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 기간 마감 후에는 선정 기간을 거쳐 2월 중 이용 결정 개별 통보가 진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아동의 경우 2024년 3월 4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아이누리 돌봄기관이 부모에겐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아이들에겐 따뜻한 휴식 공간이 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초등돌봄통합 상담은 콜센터(1588-09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
함
께
보
-
29
호

시
흥
시
가
족
센
터

1월 -

'시흥시가족센터의 새로운 소식을 알아봄'

새로운 사업이 생겼어요!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 **지원대상** 취업(이직 포함) 및 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세일센터 등 다양한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취업 지원!
※직업사전교육, 직업훈련, 사후관리

새로운 사업이 생겼어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비지원

- **지원대상** 중위소득 50%이하~100%이하 가구의 7~18세 자녀
- **지원내용** 초·중·고등학생 연간 40만원
중·고등학생 연간 50만원
고·대학생 연간 60만원

지원대상이 확대됐어요!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 **지원대상** 기존 - 취학전후 자녀 + 초등학교 저학년
확대 - 취학 전 + 초등학교 자녀 **전체**
※ 난민가족 자녀 및 외국인 가족도 수요가 있을 시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취학 전·초·중·고등학생 대상
-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쓰기 등 학습지원
• 초·중·고등학교 고학년 대상
-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지원

'가족 3과'로 통합됐어요!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 **통합목적**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의 연관성이 높아 신속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통합 운영

취약·위기가족지원

가족희망드림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족이 스스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하는 사례관리 서비스

다문화가족사례

복합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주민 가족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사례관리 서비스

가족상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심리·정서 서비스

우리는 가족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가족들은 자원을 주도적으로 활용한다.

우리는 공동체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가족들은 함께 어울려 다양한 관계망을 만들어간다.

가족 당사자는 권리의 주체로 참여하고, 우리는 가족이 정체의 당사자임을 존중한다.

우리는 가족이 행복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지지하고 동행합니다.

시흥시 가족센터

시흥시가족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449번길 51 / 031-319-7997
농곡분관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59번길 1 3층 / 031-432-7994
www.shcity.familynet.or.kr / siheungsi.liveinkorea.kr

다문화가정 자녀 위한 이중언어교육, 가족센터에서 직접 받아요!

여성가족부, 다양한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 운영...2024년엔 기초학습 지원도 실시



한국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 언어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다문화가족의 경우 둘 이상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중언어 중요성 지속 홍보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전국의 가족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영유아기부터 엄마와

아빠 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워 이중언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다시 ‘이중언어 환경조성’과 ‘이중언어 직접교육’으로 나뉘어 부모님들에게 이중언어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어요. 또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코칭, 이중언어 사용 지지체계 마련, 교재 활용 이중언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가족센터를 이용하면 이 프로그램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센터가 직접 이중언어 교육
2023년부터는 한발 더 나아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다양성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이중언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중언어 부모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이중언어 교육을 가정에서 부모가 하도록 했다면 2023년부터는 가족센터가 직

접 아이들에게 이중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2023년부터 전국의 가족센터가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중언어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도 중요하겠지요? 여성가족부는 5회에 걸쳐 가족센터에서 일하는 이중언어 코치를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교실 운영 가이드’를 만들어 전국 가족센터에 배포했어요.
그 결과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는 이중언어코치(결혼이민자)의 수는 210명이 되었어요. 이들은 소속된 지역의 수요에 맞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중국어, 캄보디아어 등 언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다양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여성가족부는 2024년도 다문화 아동·

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150% 이상 증액했어요. 이중언어 교육은 물론 다문화가족자녀의 기초학습 지원과 정서·진로상담, 멘토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예요.
교육활동비 지원도 신설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다양성이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 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인재이지만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전체 국민에 비해 30% 정도 낮다고 해요.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어요. <베트남어 32면, 태국어 13면, 영어 하단, 일본어 32면, 러시아어 10면>
과파야스토리, 자료 여성가족부

Receive bilingual educatio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irectly at the family center! 가족센터의 다양한 이중언어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The Korean government has put a lot of effort into bilingual educatio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being able to learn more than one language and cultural background is a big advantage. Let's take a look at what efforts are being made.

Continue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bilingualism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been operating a project to create a bilingual family environment since 2014.

This project is a project that supports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develop bilingual skills by naturally learning the language of their mother and father's country from infancy through family centers across the country.
This project is further divided into 'creating a bilingual environment' and 'direct bilingual education' to inform

parents of the importance of bilingual education.
We also conduct various programs such as parent-child interaction coaching,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for bilingualism, and bilingual education using textbooks. If you use the family center, you can experience all of these programs.^^

Bilingual education provided directly by the center
Starting in 2023, we will go one step further and provide direct bilingual education to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o that they can develop their diversity and talents. So, previously, parents were encouraged to provide bilingual education at home through the 'Bilingual Parent Coaching' program, but from 2023, family centers will directly teach bilingualism to children.
To this end, family centers across the country have been operating 'bilingual classes' starting in 2023. Teachers

who will teach children in bilingual classrooms are also important, righ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nducted additional training for bilingual coaches working at family centers five times, and created a 'Bilingual Classroom Management Guide' that can be used in training and distributed it to family centers across the country.
As a result, the number of bilingual coaches (marriage immigrants) running bilingual classes increased to 210. They teach languages such as Chinese and Cambodian to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under the age of 12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their region.
Support for children from diverse multicultural familie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creased next year's customized support budget for multicultural children and youth by more than

150% compared to this year. This is to significantly expand bilingual education as well as basic learning support, emotional and career counseling, and mentoring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e also plan to newly establish support for educational activity expenses, provide case management for children from low-income multicultural families, and support the cost of purchasing books or using the reading room.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talented people who have the competitive edge of diversity and can present new ideas to our society, but their enrollment rate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s said to be about 30% lower than that of the entire population. We all need to pay more attention and make efforts to support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our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ry Eve of Papaya Story

출생 미등록 아동에 '시흥아동확인증'

시흥시, 미등록 외국인 자녀 등 출생신고 못한 아동 보호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아이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권리’를 실현하고, 아이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침없는 행보를 통해 아동의 권리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보호와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아동에게 시흥시장이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해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 시흥시는 그림자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했다.

2023년 12월에는 산부인과, 어린이집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단체와 연계해 관내 곳곳에 있는 10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이

중 7명의 아동에게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가 혼인 중이 아니거나 외국인 부모가 체류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법적·행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시흥시는 ‘시흥아동확인증’ 발급뿐 아니라, 이들에게 질병관리시스템 임시번호를 부여해 18종의 필수 예방접종을 지원했다. 특히 내국인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 및 산후 조리비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연계하고,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흥시는 올해도 지속적인 그림자 아이 발굴을 통해 시흥시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누구나 각종 의료 혜택과 보육 지원, 의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존중받는 어른이 되고, 모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모든 아이가 보편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이의 출생등록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알고 있다면 상담 전화(031-310-2702)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미등록 이주민 자녀도 아동확인증을 발급하는 것은 이주민 인권을 위한 큰 발걸음이다. 김영의 기자

시흥시, 사회서비스 이용권

“다문화가족도 신청하세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월 19일까지 2024년 제1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하고,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제도예요. 시흥시는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460명 ▲아동비전형성 지원서비스 60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20명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50명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30명 ▲정신건강토달케어 서비스 70명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70명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95명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 250명 등 9개 서비스별 이용자를 1,305여 명 모집한다고 밝혔어요.

이용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160% 이하 가구(서비스별 상이)로, 1인당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자로 선정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돼요. 또한, 지금까지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인 맞춤형운동서비스, 우리가족 통합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 중에서 이용 대상을 선정했지만, 올해는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해 신청 범위를 확대했어요.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확인서, 서비스별 증빙서류 등을 준비한 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돼요. 신청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031-310-3565

파파야스토리

겨울철 화재 예방 선제적으로 대응

시흥시, 정왕동 화재 발생 현장 및 외국인 거주지 대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겨울철 화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날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은 시 관계자들과 함께 작년 3월 말, 19명의 대피 인원이 발생했던 정왕동 다세대주택 인근을 점검하며 화재 원인과 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고, 동일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논의를 펼쳤다. 현장 점검에 나선 연제찬 부시장은 관계자들에게 “최근 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화재 안전사고 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관내 화재취약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며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근 외국인 거주지를 순찰하며 화재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는 외국인 거주지의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은 “겨울철 전국적으로 화재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화재취약시설 점검과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 용구 배부로 철저한 화재 예방 대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견학프로그램 자원활동가' 모집

시흥시(시장 임병택) 목감도서관은 ‘2024년 견학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

지난해에는 총 22곳의 관내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 기관에서 311명의 어린이가 목감도서관의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 이용법과 공공예절 교육을 배우고, 독후활동에 참여했다.

목감도서관의 유아교육 기관 견학프로그램은 올해 상반기(3월~6월), 하반기(9월~11월)로 나눠 매주 수·목요일에 한 시간가량 운영한다. 자원활동가는 견학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그림이나 만들기, 책 읽어주기 등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4년 견학프로그램 자원활동가’는 1월부터 상시로 접수한 뒤에 3월부터 시작하는 견학프로그램 일정에 맞게 신청자와 조율을 통해 진행한다.

재능기부 후에는 자원봉사 시간을 제공하고, 우수자원활동가에게 동화구연 자격증 강의를 연계해 들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문의는 목감도서관(031-310-2595)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I Подготовка к поступлению

1. Порядок подготовки к поступлению

 Граждан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том числе имеющие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одно из которых граждан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ностран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В том числе дети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беженцев
 Детский сад	По такому же процессу, что и н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ученики - Подача заявки и отбор через веб-сайт "Впервые в школу(www.gowebfirstschool.go.kr)" (набор детей в октябре –ноябре) - Подача заявки на поступление директору детского сада, в который хотите поступить - Поступление возможно в пределах ограничен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мест
 Начальная школ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орган отправляет должно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ступлении в школу
 Средняя школа	- Подача заявки и распределение средней школы в начальной школе, в которой учится ребенок - В случа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средней школы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рить информацию об отборе отдельно на веб-сайте школы
 Старшая школа	- Подача заявки и распределение старшей школы в средней школе, в которой учится ребенок -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рить отдельно на веб-сайте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портал о поступлении в старшую школу(www.hschook.go.kr)
 Описанный выше процесс относится к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ученикам, которые в первый раз поступают в школу в Корею, при выборе школы для поступления зачисления ребенка необходимо сначала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со школой или отделом (поддержки) образования в школьном округе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с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поддержки образования и т.д. Термины, связанные с поступлением в школу (справо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Поступление(Зачисление): поступление в школу(новый ученик, поступающий в 1 класс) Поступление: поступление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класс школы, которая относится к обязательному образованию Поступление(Перевод): не поддерживающее обязательному образованию лицо, прекратившее обучение, поступает повторно в старший класс школы, в которой ранее учился, или поступает повторно в другую школу(в том числе поступление в тот же класс или в младший класс начальной-средней школы, в которой ранее учился)	

I. Подготовка к поступлению

2. Документы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ки на поступление ученикам с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ством

01	Заявление о поступлении или зачислении	По Passpor, который предоставляет школа или отдел образования	ДС Нач Ср Ст
02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въезд/выезд из страны, или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регистрацию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 Договор аренды, гарантийное письмо о проживании по определенному адресу или другой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факт проживания - Если вы предоставите согласие, то школа и отдел поддержки образования могут посмотреть копию регистрации резидента, регистрацию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и т.д. без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амих документов	ДС Нач Ср Ст
03	Справка об успеваемости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успеваемость до класса, который закончил или в котором учится ребенок	Нач Ср Ст
04	Удостоверение учащегося, Диплом (дл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лиц)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год, месяц и день поступления-числения и класс, в котором учится ребенок, с подписью(печатью) директора школы	Нач Ср Ст
05	Школьные записи об ученике (дл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лиц)	Предоставить, если ребенок ходил в школу в Корею	Нач Ср Ст
06	Сертификат вакцинации	Школа может потребовать документ согласно 'контролю вакцинации учеников из за границы' (Руководства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ответу на кризисы)	Нач Ср Ст
07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по указаниям отдела образования городов и провинций	Необходимо обязательно проверить документы, которые требует отдел образования	Нач Ср Ст
08	Помимо этого, для проверки информации об ученике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целях могут потребоваться копия паспорта,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семейных отношениях, копия регистрации гражданина(если есть граждан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т.д.	ДС Нач Ср Ст	

ДС: Детский сад Нач.: Начальная школа Ср.: Средняя школа Ст.: Старшая школа

- Если школа входит в 'Список аккредит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школ начального, среднего, старше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то можно исключить процесс получения апостиля и процесс подтверждения консул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и заменить документом, выданным директором школы
- Если школы нет в списке, то необходимо 'получить апостиль(страны Тагского конвенции) или получить подтверждение консул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 Заявитель подтверждает, что школа является официальным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учреждени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траны(например, распечатать и предоставить список школ, аккредитованных региональным отделом образования и др.) или, как было указано ранее, 'получить апостиль' или 'получить подтверждение консула'
 - На документе, подтверждающем получ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должна быть печать или подпись директора школы
 - К документам н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не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должен быть приложен нотариально заверенный перевод
 - При обнаружении подделывания/фальсификации документов поступлен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ученика может быть аннулировано

Если подтверждение получ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затруднительно, то вопросы по признанию получ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определению класса обсуждаются на Комитете по рассмотрению получ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учеников'

II Поступление в школу

1. Поступление в детский сад

Тип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детский сад	Общественный детский сад	Частный детский сад
Детский сад, основанный управлен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Городской/провинциальный детский сад, основанный управленным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Детский сад, основанный управленным юридическим лицом или физическим лицом

Кандидаты и период поступления

- Дети до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от 3 до 5 лет поступают в детский сад.
- Подда на прием через **"Впервые в школу"** в октябре-ноябре, в остальные периоды возможен регулярный прием в пределах ограничен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мест.

Процесс поступления

Все процессы от подачи заявки на поступление до регистрации проводятся через систему управления поступлением в детский сад - веб сайт **"Впервые в школу"** (www.go-firstschool.go.kr)

Приоритетный набор

Приним заявок

Жеребьевка/объявление результатов

Регистрация

Обычный набор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прием заявок

Основной прием заявок

Жеребьевка/объявление результатов

Регистрация

Контроль листа ожида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набор

Регистрация заявок

***Приоритетный набор**

-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рить в правилах приема в детский сад, является ли кандидат приоритетного набора или нет
- Кандидаты приоритетного набора должны обязатель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документы в детский сад

***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периода набора через "Впервые в школу", документы для поступления нужно подава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 детский сад, поступление возможно, если есть вакантное место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Процесс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первые в школу"

- Регистрация (регистрация ребенка)
- Поиск детского сада
- Результат приоритетного набора
- Проверка результата отбора
- Регистрация детского сада (при отборе)

*** Режим дня** : Делится на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4-5 часов в день) и послешкольную программу(после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режим и время могут отлича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детского сада

Пример режима дня	Категория	Время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слешко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	09:00-13:00	Приход в детский сад,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игр, перекус, прогулка, обед,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слешко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13:00-18:00	Отдых и дневной сон, послеобеденный перекус,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программы, специальная активность,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игр, прогулка

2. Поступление в начальную школу

2.

Поступление в начальную школу

Отправить
нашего
ребенка в
школу



Тип школ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начальная школа	Общественная начальная школа	Частная начальная школа
Начальная школа и начальная школа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или педагогиче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основанная управляемая государством	Городская провинциальная начальная школа, основанная управляемая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Начальная школа, основанная управляемая юридическим лицом или физическим лицом



Кандидаты и период поступления (зачисления)

- * В школу нужно ходить с 1 марта года, следующего после исполнения 6 лет, начальная школа явл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и бесплат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Если родители не зачисляют ребенка в начальную школу, то они налагаются штрафа



Процесс поступления

Процесс поступления в начальную школу в Корею следующий:

Выдача уведомления о поступлении в школу

Центр обслуживания населения отправляет в каждую семью 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ступлении в школу

Участие в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м сборе

В день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сбора, указанный в уведомлении о поступлении в школу, нужно прийти в назначенную школу

Церемония поступления

Прийти на церемонию поступления согласно материалам для новых учеников



Поступление

- * В основном, школа назначается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но в случае ребенка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семьи возможно поступление в начальную школу со специальным классом (классо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учеников
- * Родителям, желающим поступить раньше или отсрочить поступление, нужно ежегодно с 1 октября по 31 декабря посети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учреждение или общественный центр и подать заявку

※ Поступить раньше или отсрочить поступление утверждается по решению родителей, поэтому до подачи заявки необходимо хорошо подумать



Поступление в начальную школу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учеников

- * В случае детей иностранной семьи, даже если ребенок родился в Коре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ступлении в школу не выдается,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посетить ближайшую начальную школу с документами, подтверждающими проживание в Корее, и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о поступлении
- * Даже дети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могут поступить в школу, требуются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проживание в Корее, например, договор аренды жилья,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и т.д., также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год рождения

외국인근로자 10명에게 체불임금 해결서비스 무료 제공

이주민 정보서비스 파파야스토리, ‘체불임금 해결서비스 무료 이벤트’...법무법인과 함께 진행

체불임금 해결서비스 무료 이벤트

한국에서 일한 뒤 급여를 받지 못했나요?
받지 못한 급여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선착순 10명에게 무료로 법무법인의
체불임금 해결서비스를 지원합니다.

PapayaStory.com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달정보서비스 파파야스토리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해 ‘체불임금 해결서비스 무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파파야스토리의 ‘체불임금 해결서비스’는 법무법인(변호사)과 함께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가 한국 법의 절차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체불임금 해결절차
한국의 여러 이주민 지원단체가 체불임금 해결 절차를 안내해 주거나 외국인노동자가 이 안내에 따라 실제로 체불임금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면 ①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②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진술한 뒤 ③체불금품확인원 서류를 발급 받아 ④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⑤고용주와 합의 시도 ⑥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데 한국 법과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주민이 한국어로 이 모든 과정을 따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에 파파야스토리는 착수금(25만원)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모든 절차를 편리하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법무법인(변호사)이 진행하며 파파야스토리는 통역 등을 지원합니다.

무료로 법무법인의 서비스 이용
특히 파파야스토리는 2024년 1월 5일부터 착수금도 받지 않고 선착순 10명에 한해 무료로 ‘체불임금 해결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체불임금 해결시 20% 별도)

무료 이벤트는 2개월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파파야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면 입력해야 할 정보와 업로드해야 할 서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고 확실하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 이벤트는 이 정보와 서류를 최대한 많이 입력한 외국인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보와 서류를 입력하다가 중단하면 무료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에도 파파야스토리는 외국인주민 여러분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러시아어 45면, 태국어 45면, 영어 하단, 중국어 3면〉

파파야스토리

Free unpaid wage resolution service is provided to the first 10 foreign workers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Free Unpaid Wage Resolution Service Event’

Papaya Story, a total information service for foreign residents, is holding a ‘Free Unpaid Wage Resolution Service Event’ for foreign work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who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not receiving wages.

Papaya Story’s ‘Unpaid Wage Resolution Service’ is a service that, together with law firms (attorneys), supports foreign workers who have not received wages for more than two months to receive wages according to the procedures of Korean law.

Complex and difficult unpaid wage resolution process

Many immigrant support organizations in Korea provide guidance on procedures for

resolving unpaid wages, but it is almost impossible for foreign workers to actually receive unpaid wages according to this guidance.

To briefly explain the process, ① write and submit a complaint, ② atte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make a statement, ③ obtain a document confirming the payment of arrears, ④ apply for a simplified payment, or ⑤ attempt to reach an agreement with the employer, and ⑥ file a civil lawsuit.

This process takes anywhere from 8 months to over a year, and it is virtually difficult for foreign residents who are not familiar with Korean laws and procedures to follow the entire process in Korean. Accordingly, Papaya Story operates a service

that conveniently supports all of these procedures at a minimal cost, including an upfront fee (KRW 250,000). All procedures are conducted by a law firm (attorney), and Papaya Story provides interpretation, etc.

Use the law firm’s services for free

In particular, Papaya Story will be holding an event from January 5, 2024, that will provide free ‘arrear wage resolution service’ to the first 10 people without any down payment. (20% extra when resolving unpaid wages)

Foreign workers with unpaid wages of more than 10 million won for more than two months can participate in the free event. Applications can be made on the

Papaya Story website. As you go through the application process, you will notice that there is a lot of information to enter and documents to upload. This is because only then can you receive unpaid wages accurately and reliably. The free event benefits foreign residents who enter as much of this information and documents as possible.

If you stop while entering information and documents, you will not be able to receive the free event benefits.

In 2024, Papaya Story will continue to provide a variety of information and services to foreign residents to ensure that they have no inconvenience while living in Korea.

Mary Eve of Papaya story



시흥제일교회는 지난 12월 27일 성탄절 및 연말을 맞아 시흥시가족센터를 방문, 후원품(식품,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날 행사에는 시흥제일교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후원품은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에게 선물로 전달됐어요.

시흥제일교회 관계자는 “성탄절의 기쁨을 이렇게 시흥시가족센터를 통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시흥시 내에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을 위해 시흥제일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했다.”라며 “우리의 작은 선물을 통

해 전달받는 모든 아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시흥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하여 깜짝 선물을 준비하여 주신 시흥제일교회 성도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선물을 받는 다문화가정 아동들 모두가 행복한 연말과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어요.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후원 신청은 시흥시가족센터(031-319-7997)로 문의하면 돼요.

파파야스토리

시흥 능곡도서관, ‘창의교실’ 운영...초등학생 창의성 쑥쑥



시흥시(시장 임병택) 능곡도서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초등학생 주도형 공간인 ‘창의교실’을 운영

하고, ‘창의미술 놀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창의교실은 ‘문화교실2’를 어린이가 자율적으로 창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가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색종이나 색깔 솜)를 비치 했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도서관 휴관일을 제외한 도서관 운영일에 상시 개방하므로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창의미술 놀이터’ 프로그램은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도서관을 방문하는 초등학생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차마다 다른 주제로 창의미술 활동이 진행된다.

능곡도서관 관계자는 “자료실과 창의교실이 공존한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재미있는 시간을 갖길 바라고, 앞으로도 관내 초등학생들의 독서와 창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창의교실 및 ‘창의미술 놀이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능곡도서관(031-310-255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달라지는 2024년 시흥시 행정 교통 문화 복지 제도, 다문화가족도 기억해요~

시흥시(시장 임병택)에 따르면 올해 시흥시의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일반행정 6건 ▲교육.경제 16건 ▲교통.안전 7건 ▲복지.건강 58건 ▲문화.관광 2건 ▲생태.상생 7건 등 총 6개 분야 96건이에요.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해 전입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해 전세 사기 예방에 나서요.

#시흥 신중년 내일지원센터 운영

‘교육.경제’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안정을 통한 시민이 잘사는 시흥을 위해 시흥 신중년 내일지원센터를 운영해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인지 능력 부족으로 사회 적응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진단검사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확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시민 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교통환경 구축을 통한 시민이 편안한 시흥을 위해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사업이 확대된다고 해요. 현재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에 지원되고 있는 시흥형 기본교통비를 유지하고, 여기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도 지원하는 사업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아울러,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 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청년, 중장년 일상 돌봄서비스

‘복지.건강’ 분야에서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천을 통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흥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일상 돌봄서비스를 신설하고, 누구나 돌봄(시흥돌봄SOS센터) 단기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에요. 기존 생활돌봄, 일시보호, 동행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5대 서비스에서 방문의료, 심리상담을 신설해 총 7대 단기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더불어,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의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고, 출생아 1인당 30만 원의 산후조리

비를 지원해요. 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난임 부부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으로 난임부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통합문화이용권, 13만원 증액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시민이 즐거운 시흥을 위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증액 지원해요.

#절수기기 보급지원 사업 신설

‘생태.상생’ 분야에서는 시민이 쾌적한 시흥을 위해 수도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기 보급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건축물 350곳(선착순)에 절수기기 3종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또한, 농민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영농종사자에 농민기본소득 60만 원을 지원해요.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모든 공직자와 함께 시민의 삶과 민생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한 해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어요.

파파야스토리